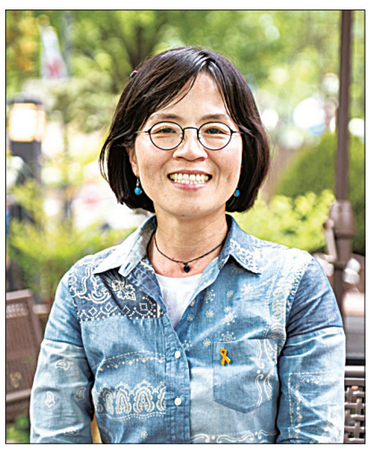
착한 소비는 없다, 깨어 있는 선택은 있다



착한 소비는 없다
최원형 지음
블랙피쉬
1만6800원

소비를 수행으로 바꾸는 방법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꾼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착한 소비는 없다〉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출발점에 '나의 소비'가 있음을 짚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폭염과 산불, 기록적인 폭우와 혹한. 이제 이상기후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아니, 오히려 그 강도는 더해지고 있다. 누구나 문제의 심각성은 느끼지만, 동시에 고개를 젓는다. 너무 크고 복잡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의 원인은 거대 산업과 국가 시스템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개인의 역할은 미미하게 느껴진다.

〈착한 소비는 없다〉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출발점에 '나의 소비'가 있음을 차근차근 짚어 나간다.

'착한 소비는 없다'고 단언하는 저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윤리적인 소비'라는 말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소비란 본질적으로 지구의 자원과 노동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렇기에 완전히 '착한' 소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착한 소비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자는 그 답이 '똑똑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 온 일상의 소비가 어떤 경로를 거쳐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지를 생활 속 에피소드로 풀어 낸다. 옷 한 벌, 배달 음식 한 끼, 클릭 한 번의 온라인 쇼핑이 노동 착취와 물 부족, 생태계 파괴, 생물 멸종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 준다. 개인의 선택이 사회를 거쳐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의 그물망을 떠올리게 한다. 나와 무관한 문제처럼 보이던 환경 위기가 사실은 나의 삶과 촘촘히 맞닿아 있음을 이 책은 집요하게 환기한다.

지난 2020년 출간돼 생태·환경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 책이 5년 만에 전면 개정판으로 돌아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소비의 무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했고, AI 기술의 확산은 업무와 일상의 속도를 한 층 더 끌어올렸다. 우리는 '편리함'을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에서 어떤 대가가 축적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묻지 않았다. 개정판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변화된 소비 환경과 기술 발전이 만들어 낸 새로운 문제들을 보완하고, 개인-사회-세계로 확장되는 구조 속에서 사고의 범위를 넓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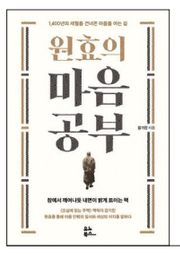
저자는 끊임없이 묻는다. '정말 필요한가',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이 편리는 누구의 희생 위에 놓여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독자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화두에 가깝다.

이 책이 환경서적 특유의 피로감을 주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점도 주목된다. 한 달에 하루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정해 보기,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없는 하루' 보내기, 고장 난 물건의 수리 방법 찾아보기, 세탁과 탈수 시간 줄이기, 외식할 때 먹지 않을 반찬은 받지 않기 등 제안이 소박하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작은 수고로움'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탐욕을 줄이고, 지금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살피는 깨어 있음은 곧 수행의 태도다. 저자가 말하는 변화는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선택을 조금씩 달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덜 사고, 오래 쓰고, 함께 바꾸는 삶. 이는 환경을 위한 윤리 이전에 삶의 밀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러한 실천이 너무 사소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히 말한다. 지속 가능한 삶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으며,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착한 소비는 없다〉는 질문으로 시작해 행동으로 끝나는 책이다. 환경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 온 독자에게 책은 '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조용히 내민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역학자가 읽어 주는 원효 사상



원효의 마음공부
강기진 지음
유노북스
2만2000원

원효 스님 사유 체계 정리
"한마음은 모든 존재 근본"

복잡한 주역의 세계를 쉬운 비유로 풀어내 주목받은 역학자 강기진 태극사상연구소장이 이번에는 원효 사상을 소개한다.

〈원효의 마음공부〉는 저자가 〈금강삼매경〉,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를 중심으로 원효 스님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철학·심리학을 연결해 설명한 책이다. 〈금강삼매경론〉은 '경전 위의 경전'이라 불리는 〈금강삼매경〉을, 〈대승기신론소〉는 인도 마명 보살이 썼다고 전하는 〈대승기신론〉을 원효 스님이 각각 풀이한 책이다.

저자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선 후 원효는 마음을 찾고자 길을 나섰다. 모든 것을 지어내는 마음,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며 "이 책은 원효의 마음공부 여정을 따라가며 그가 이룬 마음의 성취를 배워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책에서는 고통이 생겨나는 구조를 추적하며 '마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실체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원효 스님의 핵심 사상을 '한마음'으로 정의한다.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 스님은 "한마음은 일체의 더럽거나 깨끗한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의지처가 되는 것으로, 곧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한마음 여래장이 궁극의 일자요, 만법의 귀의처임을 깨달았을 때 원효는 그간의 모든 의혹과 번뇌는 남김없이 깨뜨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기본 심성은 한마음을 찾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원효가 정립한 한마음 사상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과 일치하기에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설명한다.

수행으로 〈법화경〉 읽기



법화경 수행 연구
현수 스님 지음
운주사
2만8000원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1463년, 보물. 사진 출처=국가유산포털

부처님이 '가장 바른 흰 연꽃과도 같은 가르침'이라 찬탄한 〈법화경〉. 사경과 독송, 기도를 통해 〈법화경〉과 인연을 맺지 않은 불자는 드물다. 그러나 이 경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수행하라고 말하는지, 그 수행의 구조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현수 스님(중앙승가대 강사)은 포교 현장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신심에 감동하면서도 "과연 〈법화경〉은 우리에게 어떤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됐다. 그 안에 담긴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 나아가 성문·연각·보살 등 삼승 수행의 구조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복적 신행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법화경 수행 연구〉는 일불승과 회삼귀일 사상이 왜 등장했는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피고 있다. 스님은 〈법화경〉의 형성과 전승, 원전과 번역본의 차이, 사상적 배경을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이 경전이 왜 일불승 교설을 설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법화경〉은 기적과 권능을 설하는 신앙 경전이 아니라, 분리되고 대립하던 삼승 수행을 하나의 길로 통합하려는 대승불교의 핵심 선언이라고 정의한다.

책은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법화경〉의 형성 과정과 중심 교설을 다룬다. 다양한 산스크리트 원전 전승과 한역 번역본을 비교하며, 경전이 지닌 다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특히 천태지의의 해석을 토대로 〈법화경〉이 성문 중심의 교설을 넘어 보살의 무량한 세계로 확장되는 사상적 궤적을 짚어 낸다.

제2장은 일불승 교설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부파불교 시기, 삼승 수행은 서로 다른 길로 분리돼 있었고, 이는 교단 내부의 갈등과 배타성을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 속에서 등장한 것이 초기 대승불교의 통합적 시도였으며, 〈법화경〉은 그 정점에 놓인 경전이다. 스님은 일불승과 회삼귀일의 사상이 "모든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끈다"는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을 가장 응축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제3장에서는 삼승의 수행 체계를 '하나의 수행 지도'로 재구성한다. 성문승은 초기불교의 수행 단계로, 연각승은 독각적 수행의 길로, 보살승은 육바라밀과 보살 52위의 수행 체계로 정리한 뒤, 이 모든 수행이 결국 하나의 목표, 곧 부처의 길로 모이는 과정을 밝힌다.

제4장은 〈법화경〉 수행의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설명한다. 즉 개인으로는 '부처와 똑같은 성품이 있음'을 자각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일체중생을 부처로 보는 태도를 갖추고,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구원성불의 존재임을 자각해 안온한 불국정토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불승 향한 삼승의 '수행 지도' 재구성
'안온한 불국정토' 만드는 현대적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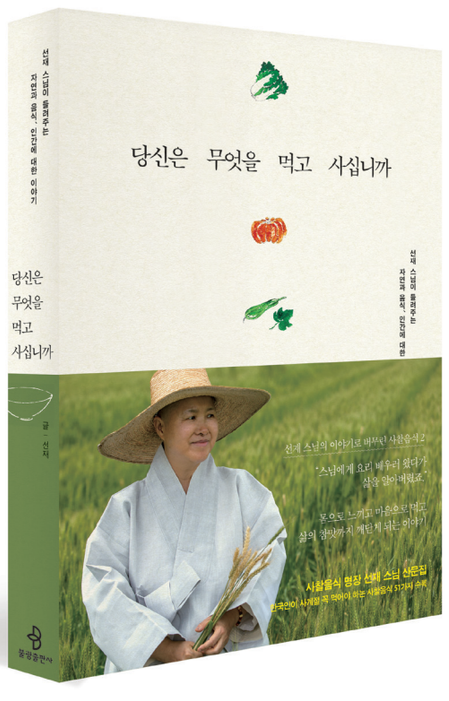
특히 사회참여불교와 연결되는 현대적 의미를 제시해, 불평등·갈등·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화경〉의 일불승 가르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수 스님은 "〈법화경〉의 핵심 교설인 일불승설은 방편으로 제시되는 회삼구일과 같이 깨달음의 대통일장이론"이라며 "이 책이 〈법화경〉을 신행해 온 분들께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으로 화제!

선재 스님이
들려주는 건강한 음식,
행복한 삶에 대한
단단한 메시지!



선재 스님이 들려주는 자연과
음식, 인간에 대한 이야기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한국인이 사계절 꼭 먹어야 하는 사찰음식 21가지 수록

선재 지음 | 368쪽 | 22,000원

나와 가족, 온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절집 밥상
사찰음식에 담긴 비움의
미학과 공존의 철학



선재 스님의 약보다 좋은
사찰 음식 이야기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이시형 박사 추천, 선재 스님 30년 음식수행의 결정판!

선재 지음 | 256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